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통한 회화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보 영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통한 회화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보 영

인 준 서

김보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8년 ‘그런, 관계’란 제목의 석사학위 청구 전시를 통해 발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된 작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사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를 비판하며,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를 얽힘의 구조로 바라보면서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과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작업 배경으로 연구하고 본인의 경험된 관계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적합한 표현기법과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둔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경험하는 타인과의 관계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자본주의로 인한 현대인들의 차갑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친밀관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대인관계의 문제점으로 드러남에 따라 따뜻하고 친교적인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본인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 구조를 얽힘의 구조로 바라보게 되고 이를 회화작업으로 만들기 위해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업 배경을 본인의 작업에서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양모를 단단하게 뽀아내는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주제로써

빛대어 회화적 표현을 하기 위해 양모를 소재로 한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통해 육체적 개입에 의한 반복적 행위의 모습은 본인의 주체적 관계 형성 과정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서술하며,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모의 물성 중 촉흥성을 연구하고 양모를 축적하여 만들어 내는 부드러운 촉감을 연구하여 관계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회화적 표현으로써의 적합성을 뒷받침하고 인간관계 속 심리적 표현을 분석하면서 작품세계를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현대인의 관계 형성	3
2. 표현방법 연구	6
1) 양모의 특성	8
2)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	10
3. 본인 작품 분석	13
1) 촉감	14
2) 행위성	21
3) 심리적 표현	28
III. 결론	3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상한 관계: Falling, 130×60cm, 천에 혼합재료, 2017	16
【작품 2】	관계의 대화, 92.5×61.5cm, 천에 오일파스텔, 양모, 2017	18
【작품 3】	다른 관계 #1, #2, 20×20cm, 천에 양모, 2018	20
【작품 4】	다른 관계 #1, #2, 20×20cm, 천에 양모, 2018	20
【작품 5】	관계 형성, 73×60.5cm, 천에 양모, 2015	21
【작품 6】	관계 형성, 4분 59초, 비디오, 2015	23
【작품 7】	G, 27×22cm, 천에 양모, 2017	25
【작품 8】	B, 27×22cm, 천에 양모, 2017	25
【작품 9】	I, 27×22cm, 천에 양모, 2017	25
【작품 10】	P, 27×22cm, 천에 양모, 2017	25
【작품 11】	드러나는 관계, 100×60cm, 천에 양모, 2018	27
【작품 12】	관계의 대화, 227×162cm, 천에 양모, 2017	29
【작품 13】	스쳐가다, 37×46.5cm, 천에 혼합재료, 2017	30
【작품 14】	머리, 가슴, 빛(가로), 100×30cm, 천에 혼합재료, 2017	31
【작품 15】	머리, 가슴, 빛(세로), 100×30cm, 천에 혼합재료, 2017	31
【작품 16】	흐르는 관계, 15×22cm, 천에 양모, 2017	33
【작품 17】	제거된 것, 135×70cm, 천에 양모, 2018	34

도 판 목 차

- 【도판 1】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 오브젝, 모피로 된 아침(Object, Fur Breakfast), 모피, 커피잔, 받침, 나이프, 1936 15
- 【도판 2】 윤명로, 얼레짓 84-425, 면에 아크릴, 떡, 85×130cm, 1984 22

I. 서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많은 요인 중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일 것이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뇌가 그 사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삶에서 이 사이 즉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인간은 현대사회를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감정을 알아가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본인에게도 어릴 적 타인과 함께하던 기억과 감정은 삶에서의 원동력이 되었고 나와 이어진 사람들은 나의 삶의 일부로써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사회로 나오면서 점차 감정과 신뢰, 물질 등을 서로가 보상받으려는 형식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의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고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관계 맺음 속에서 느꼈던 행복은 그리움으로만 남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현대인들은 개인의 감정과 가치관 등 개인을 더 중요시하며 서로의 이득과 손실에만 집중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모습을 친밀한 관계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의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게 되고 본인에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일지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에게 있어 예술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본인은 작품에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인간이 만드는 관계의 기본 과정과 구조를 연구하여 본인의 작업을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붓과 물감이 아닌 특수한 바늘과

색색의 양모를 사용해 회화적인 작업을 만들어 낸다. 본인이 특수 바늘과 양모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기법적인 면에서 시작하는데 자극을 통해 엮히는 양모의 형상과 본인이 손수 양모에 바늘로 자극을 주면서 느끼는 순간의 느낌을 관계의 구조로 바라보게 되면서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 기법을 회화적인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작업을 촉감과 행위성, 심리적 표현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계 형성에서 이기적인 관계 맺음의 영향이 커짐으로 인해 차갑고 딱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인이 생각하는 관계 형성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인 관계의 엮힘,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 대해 온전하게 생각과 마음, 믿음 등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맺음의 모습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인이 바라본 엮힘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작업에 주로 쓰이는 양모라는 소재에 관하여 연구하고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에 관해 연구하여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회화 작품을 제작하는 표현기법으로써의 가능성과 적합성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성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촉감적 의미와 양모의 촉음을 만들어 내는 작품 제작의 반복적인 행위성을 이야기하고 작품에서의 심리적 표현을 차가움과 따뜻함으로 분류해 연구하여 서술하며, 이 논문의 연구 결론에서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작품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서술하여 마무리할 것이다.

II. 본 론

1. 현대인의 관계 형성

인간이라면 누구든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으며 산다.¹⁾ 하지만 현대사회가 개인적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우리는 거래와 교환의 공정성, 즉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따지며 살아가고 삭막해져만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며 차갑고 정 없는 사회가 되어간다. 이러한 사회적 모습이 타인과 관계에서 차가워진 행동과 마음으로 나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타인에게 딱딱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친밀관계가 사라져가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본인은 어릴 적 타인과 보낸 시간을 행복했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 처음 사회로 나와서 새로운 타인을 만나 관계를 만드는 것은 본인에게 즐겁고 설레는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삭막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인 모습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나누었던 마음과 시간, 물질 등을 서로가 보상받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1) 이재열, 『생활 속의 인간관계론』, 북코리아, 2009, p.29

모습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자기 이득을 챙기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모습은 타인과의 친분 관계에서도 났다. 이후 본인은 새롭게 만나는 타인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내 마음에 벽이 생겨 이전의 본인을 온전히 받아주고 이해해주던 사람들과 형성된 관계의 모습을 잊고 시작부터 겁먹고 외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습이 원래의 내 모습인지 나도 사회에 몰들고 있는 것인지 고민에 빠져들며, 이러한 자각은 본인을 혼란스럽게 했고 답답하고 차가운 사회의 현실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본인은 차갑고 딱딱한 사회에서 겪었던 경험을 본인과 타인의 관계에 관한 작품을 통해 다시 바라보고자 하였다.

본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해 먼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을 타인과의 얽힘이라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누구나 인간은 한평생 동안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인연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행복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며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이러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선 서로의 이해가 중요하다. 서로 이해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좋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나’와 ‘너’보단 ‘우리’로서 생각하게 한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수록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깊어진다. 상대방을 잘 알수록 대화의 주제가 넓어지고 상대방의 언행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 격려, 공감, 위안 등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과 상대방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함께 느끼고 전달해 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이러한 경험들은 서로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하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 즉 얽혀있음을 느끼게 한다. 얽힘이란 ‘이리저리 관련되게 하다.’³⁾라는 뜻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관련된 존재가 되는 모습으로써 관계의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관계의 구조에서 얽힌 정도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여러 가지 공유의 양,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등에 따라 더 많이 얽혀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2004, pp. 265-268 참고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2019.10.16.) 참고

2. 표현방법 연구

본인은 관계 얽힘의 구조를 회화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면서 이에 적합한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는데 그때 니들 펠트(Needle Felt)라는 기법을 알게 되고 본인은 이 기법을 이용해 제작한 초기 실험작업으로 [그림 1]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의 가장 기본의 형태를 자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을 부조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본인과 이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작품화면에 그대로 써 내려가면서 작업하였다.



[그림 1] 초기실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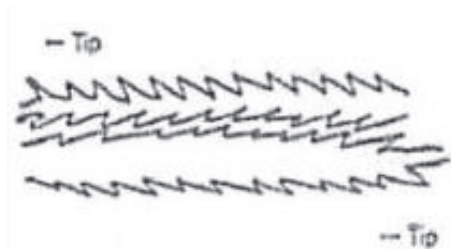
이 작업에서 본인은 글씨(이름)를 적는 의미보다, 기법의 활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만들어 내는 자극 때

문에 영키게 되는 양모의 모습이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 형성의 과정이었고 자극과 영킴의 반복된 행위를 보며 타인과 만나(자극) 신뢰를 쌓아가는(엮힘) 것을 반복하여 단단하게 형성되는 우리들의 관계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본인의 작업 행위와 형상화되는 느낌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의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는 본인이 사용했던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통해 엮힘의 구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을 논하기 위해 본인이 제작한 작품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양모의 특성과 양모의 특성을 이용한 펠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이 회화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의 적합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양모의 특성 중 축융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며, 축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양모의 구성과 특성을 살펴보고 본인 작품의 기본인 표현기법으로서 펠트 기법 중 니들 펠트 기법(Needle Felt)의 특징에 관하여 연구하고 본인이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모의 특성

양모 섬유 표면의 표면을 싸고 있는 표피는 기와를 이어 놓은 것 또는 생선 비늘의 배열같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고 그것이 [그림 2]와 같이 털끝(Tip)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양모섬유가 서로 마찰하면 섬유는 조금 방향으로 전진하지만 후퇴하지는 못해 일단 섬유가 엉키게 되면 풀리지 않는다. 이때 이 기와나 생선 비늘과 같은 것을 스케일(Scale)이라고 한다.⁴⁾ 스케일의 비늘 모양으로 말미암아 전진은 하지만 후퇴하지 못하고 따라서 일단 엮힌 것은 풀리지 않는 양모의 축융(Felting)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양모의 이러한 성질은 독특한 가공법의 하나로 작용하는데, 습기, 열, 마찰, 그리고 압축 등을 작용시키면 양모섬유가 서로 이동하여 [그림 3]과 같이 모우(毛羽)⁵⁾가 서로 엉키어 길이와 폭 방향으로 수축되고 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조직이 치밀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축융이라고 하며 방모직물이나 펠트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⁶⁾



[그림 2] 양모의 스케일



[그림 3] 축융 메카니즘

4) 고석봉, 『羊毛講座』, 교문사, 1996, p.64 참고

5) 모우(毛羽) : 길집승의 털과 날집승의 깃을 아울러 이르는 말.

6) 김원모, 「섬유의 탄성과 라텍스의 경화성에 의한 섬유변형」,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p.14

본인은 이러한 양모의 축융성을 이용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형성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양모의 축융현상은 양모 사이사이에서 어떠한 자극 때문에 생기는 얽힘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만남과 소통 등 여러 가지의 인간의 삶을 자극하는 요소에 의해 관계가 얽히게 되는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양모의 축융성을 이용해 만드는 펠트의 기법은 본인에게 회화작업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2)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

펠트(Felt)는 실이 되기 전의 양모 섬유로서 재직이나 방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압축하여 만든 섬유를 의미한다. 양모에 온기, 습기와 열을 준 후에 마찰과 압력을 가하면 양모의 스케일 층 구조 때문에 각 섬유질은 서로 엉겨 붙고 수축하게 되어 양모의 처음 부드러운 상태가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면서 한 장의 천처럼 제작되는 과정을 축융성(Felting)이라 한다.⁷⁾ 양모 섬유의 축융성으로 인한 펠트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림 4]와 같이 평면적인 질감을 표현하는 작업부터 본인의 의도에 맞는 질감, 색채, 형태 등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 5]와 같이 입체적 조형이나 부조 조형 작품까지 펠트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작품 16】 부분



[그림 5] 【작품 13】 부분

7) ZHANG JIN, 「양모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9, p.7 참고

펠트에 여러 펠트 가공기법 중에서 관계 구조로써 얽힘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은 특수 바늘의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인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사용하였다.

니들 펠트 기법은 부직포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니들 펀칭(Needle Punching)기법을 응용한 것이며,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은 열과 습기를 가하는 다른 펠트 기법과는 달리 미늘⁸⁾이 형성되어있는 특수하게 제작된 니들(Needle)의 반복적 수직 동작을 통해 섬유를 다른 섬유와 조직이 얽히게 함으로 축융을 가능케 한다.

니들 펠트의 기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수천 개의 바늘이 꽂혀 있는 기계로 작업하는 방법과 수(手)작업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본인은 수(手)작업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 방식은 기계로 작업하는 방식과 달리 바늘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니들 펠트 기법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니들의 종류와 원단을 통과하는 횟수이며 원단을 깊고 많이 통과할수록 단단해진다. 니들은 거칠고, V자 형의 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섬유를 다른 섬유와 조직이 얽히도록 한다.⁹⁾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핸드 니들 펠트는 양모, 펀칭 매트, 펀칭 바늘이 사용되며[그림 6], 본인이 사용한 바늘의 종류는 1구, 7구가 있는데 이는 각각 숫자의 개수대로 바늘이 배치되어있는 특수한 바늘의 형태이다. 1구 바늘은 작업을 시작할 때 양모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주로 7구 바늘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늘의 개수가 많아서 보다 넓은 면적의 작업을 할 수 있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은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8) 미늘 :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

9) 남유선, 「장욱진 회화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p.68 참고

는 1구 바늘을 사용하거나 1구 바늘을 2, 3개 겹쳐 사용하기도 한다. 3구용 바늘이 따로 나오지만, 본인이 사용해본 결과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날개의 1구 바늘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였다. 그리고 니들 펠트에 사용되는 바늘의 게이지는 높을수록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바늘은 사용 목적에 따라 게이지를 바꿔 사용하는데 본인은 주로 38 게이지의 바늘을 쓰며,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40 게이지를 쓴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편칭 매트는 PE폼으로 5T(약 5cm) 두께를 사용하여 바늘이 통과하는 횟수가 많아도 두께가 두꺼워 매트와 바늘의 마찰이 덜하여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매트와 바늘의 사이를 조절이 가능하여 작품 사이즈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편칭 매트에 비해 단단하여 작업하는데 흐트러짐이 덜하다. 본인은 이러한 펠팅 작업을 천위에 표현하게 되는데, 주로 캔버스 천(광목)을 사용하며 이는 광목의 실 사이가 촘촘하고 단단하여 양모를 딱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광목은 다른 면에 비해 늘어짐의 정도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그림 6] 양모, 편칭 매트, 편칭 바늘

3. 본인 작품 분석

모든 예술은 표현과 형식의 감각적 매체를 통하여 어떤 지각적 혹은 상상적인 재창조를 가지며, 그것은 자기의 지각, 사유, 감정을 타자에게 혹은 사회에게 전달하는 활동이 된다. 이러한 활동에서 사람들은 삶을 느끼고 사회를 이해하며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사회 혹은 타자에게 작품의 기법을 통해 양모의 축융되어 얽혀가는 모습을 타자와 관계를 맺어 단단해져 가는 모습에 빗대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본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을 본인의 작품을 통해 지각, 감정, 사유를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의 작업을 통해 사회 혹은 타자에게 전달하려 하면서 우리의 현 사회에서의 타인과의 관계의 흐름을 이해하려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회화적 표현은 작품에서 양모로 표현되는 부드러운 시각적 이미지에서 촉감의 요소를 연구하고 의미화하여 이기적인 현대사회의 딱딱한 관계를 비판하려 함에 부드러운 느낌으로써 현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적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본인의 신체를 사용하여 붓이라는 도구 대신에 양모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찌르는 행위적 표현으로써 본인이 작품에서 회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관계에서의 무의식적인 감정 몰입과 그 흔적들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계 속의 심리적 표현을 감정, 색감, 형상화된 이미지 등으로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촉감

여러 예술 분야 중에서 미술의 전달 방식은 대부분이 시각에 의존 되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시각을 통해 단순하게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통해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여러 감각 간에 공감적 교류를 통하여 이미지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예술이며, 현대미술에서는 여러 감각을 적극적으로 가져와 예술 작품으로 보여주기까지 한다. 인간이 느끼는 오감 중 하나인 촉감은 재료의 속성, 질감, 이전 경험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감성으로서 모든 촉각적 경험을 의미하며,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한 등의 인간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촉각, 질감의 감성표현을 말한다.

촉감은 오래전부터 회화에서 '시각적 촉감'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되어왔다. 시각적 촉감이란 직접 만지지 않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촉각의 경험을 말하며, 이는 작품의 표면, 질감에 따라서 지각적 경험으로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양모라는 소재를 통해 부드러운 촉감이 표현된다. 이 촉감을 통해 화면에서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양모의 재질에서 주는 부드러운 촉감의 느낌은 솜이불의 포근함, 따뜻함 등을 연상하게 하며, 이는 경험에 의한 호의적 감각 경험을 유발한다. 이런 촉감의 표현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관계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시키려 하였다.

촉감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잘 표현한 작가인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¹⁰⁾의 【도판 1】을 살펴보면.

10) 독일 출신의 초현실주의 조각가. 일상의 사물들을 에로틱하게 보이도록 위트 있게 배열 하였으며, 여성성과 무의식을 탐구하였다.
출처: 스티븐 파딩, 박미훈 옮김, 『501 위대한 화가』, 마로니에북스, 2009, p.44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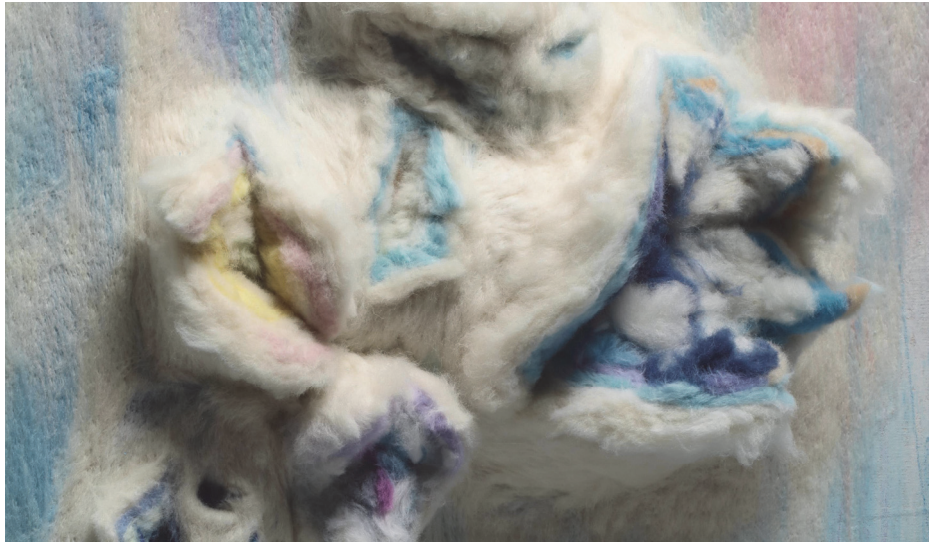


【도판 1】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 오브젝, 모피로 된 아침(Object, Fur Breakfast), 모피, 커피잔, 받침, 나이프, 1936

부드러운 털의 촉감을 가지고 이질적인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녀가 파리에서 산 찻잔과 받침, 스푼에 모피를 붙여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물신’의 개념을 탐구한 초현실주의로 분류되는데, 오펜하임은 이를 통해 매력적이면서도 혐오스럽고, 유쾌하면서도 불쾌한 물신숭배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하며, 잠재적 에로티시즘과 남성이 주도하는 미술계에 대한 조롱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 작품의 첫 시각에서 받아들여지는 촉감으로써의 느낌은 당연하게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피로 덮여있는 찻잔은 입술에 닿을 때의 이질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켜 털의 촉감 때문에 접촉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로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보여주는 촉감은 작품의 의도와 바라보는 이가 느끼는 촉감의 느낌에 따라 의미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작품 1】 상한 관계: Falling, 130×60cm, 천에
혼합재료, 2017



[그림 7] 【작품 1】의 부분

본인의 【작품 1】에서는 부조의 형태를 만들어 들출시킴으로써 작품에서의 촉각적인 이미지를 더욱 들어낸 작업이며, 이 형태를 자르며 형상화 시킨 모양에서 시작적 촉감의 이미지는 기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 작품은 갈등으로 인한 관계의 끝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써 어디론가 한없이 떨어지고 온몸의 감각이 내려앉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하는 제작행위로 인해 형상화된 덩어리를 칼, 가위 등으로 절단함으로써 관계의 갈등과 끝을 표현하며 덩어리의 기괴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림 7]을 자세히 보면 관계가 형상화되어 갈라진 속에서는 여전히 양모가 얽혀있는 부드러운 촉각적 형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전히 얽혀있는 모습에서 얽힌 정도를 보면 단단하게 얽힌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단단하게 얽힌, 즉 더 많이 얽는 행위를 한 곳은 매우 단단하게 얽혀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은 단단하게 엉켜있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져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은 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종종 타인과 관계로 얽혀 있다가 그 관계를 끝

냈을 때 ‘나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느낌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서로의 삶에 엮이게 된다는 것 또는 나의 일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따라서 관계가 끝이 나면 자신에 대해 더 알기도 하지만 자신을 더 잃기도 한다. 내 삶과 나의 추억, 나와 공유했던 무언가를 우리는 서로 잊고 지우려 하며 결국은 나 자신을 잃게 된다. 하지만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절단된 관계의 형태에서는 여전히 속은 부드럽게 촉각적인 형태로 얽혀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관계가 끝이 남에도 나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관련된 관계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는 시리즈이다. 그저 이전의 얽힘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엮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던 작업이었다.



【작품 2】 관계의 대화, 92.5×61.5cm, 천에 오일파스텔, 양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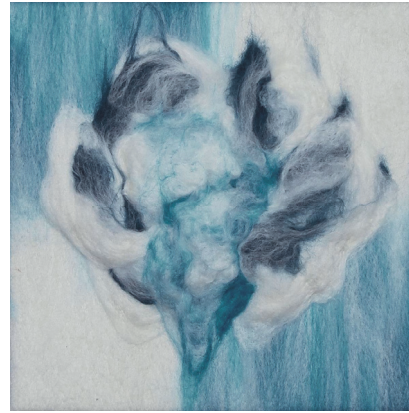
【작품 2】는 작품의 사방의 틀을 양모로 감싸면서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면서 니들 펠트 기법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각에 사로잡을 수 있는 촉감을 더욱 드러낸 작품이다. 사방에 감싸져 있는 부드러운 양모로부터 포근하고 가벼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마치 상상 속이나, 꿈속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 작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결론을 서로의 감정에 가뒀 자각하지 않으려 했던 경험을 담아내려 하였다. 이를 의자 사이에 부정적 결론을 의미하는 상자를 영켜버린 인연의 끈 안에 가뒀두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어 표현하였으며, 이 그림의 사방을 양모로 감싸 입체적 형태를 만들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드러운 촉감을 통해 이성적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현실의 공간이 아닌, 마음의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표현한 작업이다.

회화에 있어서 “촉각성”은 겹침과 스밈, 텅김 등 작가의 행위에 의해 수반되는 회화의 바탕(캔버스)위에 질료(물감)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촉감으로 회화의 대상이 되는 형상과 색상이라는 이미지의 재현에서 벗어날 때 뚜렷해진다. “촉각성”은 시각을 통한 사유 이전에 작가의 행위를 몸의 감각 즉, 촉각으로 감지할 때 작품 속에 내재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¹¹⁾고 한다. 본인의 작품에선 찌르기, 엮기, 얹기, 쌓기 등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덩어리에서 촉각성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다.

11)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촉각적 회화>, 2016,
기당미술관(<http://culture.seogwipo.go.kr/gidang/>)



【작품 3】 다른관계 #1, 20×
20cm, 천에 양모, 2018



【작품 4】 다른관계 #2, 20×
20cm, 천에 양모, 2018

이처럼 축적되어가는 양모의 촉각성을 드러낸 【작품 3】 과 【작품 4】 는 관계의 반복 속에서 일상의 평온함을 깨며 나타난 갑작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의 복잡하고 흔들리는 감정의 경험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어떠한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 이 작품에서 갑작스러워 혼돈되어있는 감정을 다른 색상의 양모를 이용해 본인이 마구잡이로 뭉쳐 생겨나는 우연적 요소를 가지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본인의 행위에 수반되어 형상화된 형태를 통해 작품의 촉감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 촉감은 바늘로 다양한 색의 뭉쳐놓은 양모를 찌르는 반복적 행위가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촉감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색감에서 드러나는 차가움으로 본인의 갑작스럽고 복잡한 관계에서 보이는 낯선 감정을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특정한 이미지의 재현에서 벗어나 부드러움의 촉감을 통해 작품 속에서의 내재하고 있는 긍정적 관계의 의미를 회화적 표현으로써 부드러운 촉감 느낌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 제작의 ‘엮기’의 행위 또한 양모의 물성을 이용해 부드러움의 촉감을 형상화하는 신체적 행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2) 행위성

현대미술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으며 작가들은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적합한 기법을 연구하여 작품을 만들어 낸다.

본인은 작업하는 행위에 본인의 경험을 투영하여 이를 의미화 시키고자 했다. 본인에게서 니들 펠트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본인의 관계를 엮는 것이다. 추상미술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과 몰입이 ‘붓 터치’나 붓놀림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고, 그것은 대체로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때, 그 붓 터치는 미술가의 육체적 윤리적 개입, 즉 재료와의 진정한 접촉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인 즉흥적인 ‘흔적 만들기’를 의미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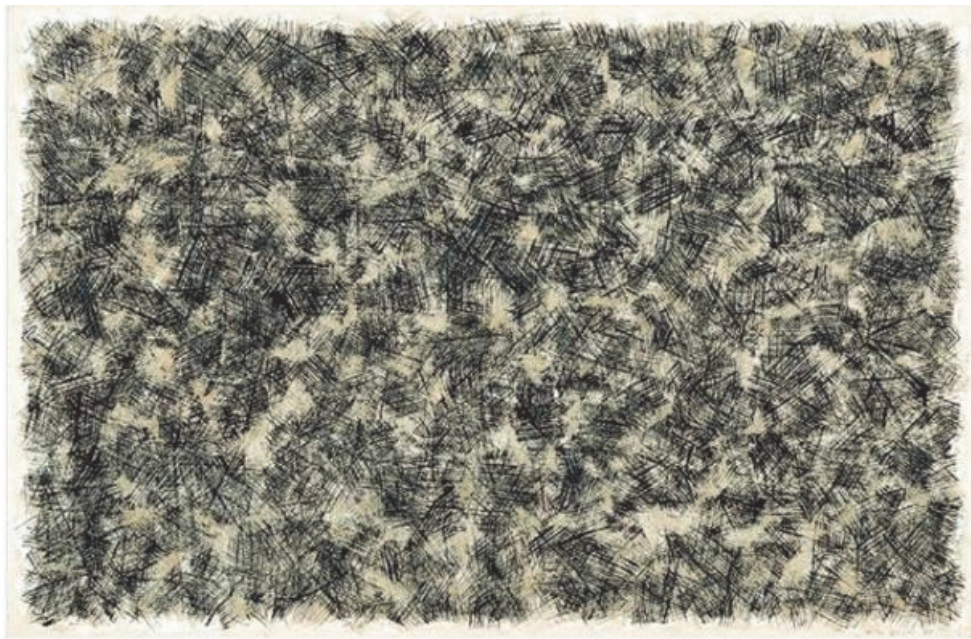


【작품 5】 관계 형성, 73×60.5cm, 천에 양모, 2015

12) 멜 구덩, 정무정 옮김, 『추상미술』, 열화당, 2003, p.66

본인의 작품으로써 ‘엮기’는 【작품 5】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이미지의 양모가 엮혀있는 모습으로 본인의 관계 형성의 구조와 엮힘의 감각만을 표현하려 함이 시도되어왔다. 이때, 본인이 양모라는 재료와 신체적 접촉으로써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이 주체자로 엮는 관계의 모습을 즉흥적인 흔적으로 남기게 된다.

작품에서의 행위는 또한 단색화 작가들에게서 재료의 물성을 가지고 작업에 이용하여 반복적 행위를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작업에 선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축을 이루었던 몸(body), 즉 신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¹³⁾ 이렇게 예술에서 행위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함께 화면에 육체적 개입을 통한 신체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게 된다.



【도판 2】 윤명로, 얼레짓 84-425, 면에 아크릴과 먹, 85×130cm, 1984

13) 윤진섭, 「1970년대 한국 단색화의 등장과 전개」,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6

윤명로의 【도판 2】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그림은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행위이다. 표현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신체’이다. 신체는 작가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언어를 말하는 유일한 수단¹⁴⁾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은 관계의 얽힘을 본인의 신체적 개입을 통해 특수한 바늘로 양모를 찢러 엮히게 하는 행위 자체를 관계 형성을 시작함을 의미하며, 본인은 이 행위와 기법을 의미화하여 근본적인 가치를 재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즉 본인의 신체를 활용하여 특수 바늘로 양모를 찢러 엮는 것은 작가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은 화면에 육체적 개입을 하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관계가 엮히는 상황, 사건 등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관계의 결과를 형상화시킴으로써 본인의 관계를 다시 바라본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설명하여 서술의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작품 6】 관계형성. 비디오 , 4분 59초, 2015

14) 김복영, 『눈과 정신』, 한길아트, 2006, p.95



[그림 8] 【작품 5】의 부분

먼저 앞에서 설명된 【작품 5】는 관계 형성의 초반 작품으로써 관계의 얽힘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 【작품 6】을 함께 만들면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체적 개입에 의한 반복적인 행위성을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고자 시도를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8]과 같이 양모의 얽힘이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행위를 통한 얽힘의 구조가 나타나면서 의미화되고 있다.

현대예술에서는 또한 ‘개념’적 접근을 통해 행위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행위를 표현의 대상으로 보고 사유한 것이다.¹⁵⁾ 이는 본인이 바늘로 양모를 찢어 모우(毛羽)를 얽는 반복적 행위를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바라본 것과 앞으로 설명할 작품들에 나타나는 자르고 태우고 그을리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본인의 제작행위는 관계를 만들고 끊고 지우는 모습의 개념적 의미로 야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게 한다.

15) 전인환, 「현대공예의 제작행위와 기법의 의미화를 통한 작품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11



【작품 7】 G, 22×27cm, 천에
양모, 2017



【작품 8】 B, 22×27cm, 천에
양모, 2017



【작품 9】 I, 22×27cm, 천에
양모, 2017



【작품 10】 P, 22×27cm, 천에
양모, 2017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은 바늘로 양모를 찌르기와 칼로 상처 내기를 반복하여 만든 작품이다. “관계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반복이라고 말하겠다. 아침마다 태양은 광속으로 출근하고, 매일같이 야근하는 달은 보석박람회를 연다. 꽃들은 어떤가. 행락철 때마다 어김없이 출장 오는 꽃들로 지구는 미어터진다. 지긋지긋하게 새로운 반복이다.”¹⁶⁾라는 글처럼 관계는 이렇게 얽히고 상처 나고 또 새롭게 얽히고 상처 나기를 반복한다. 본인도 상처받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새로운 만남으로 덮으려 하였지만 같은 자리에 또 상처가 생기고 다시 덮고 상처 나고 덮고를 반복해 왔다. 그래서 이 작업은 작품에서의 반복되는 행위성은 이전 작업처럼 관계를 엮는 행위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칼로 그어 상처 내는 철저하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관계 속 갈등과 실패 그리고 반복되는 새로운 만남을 표현하고자 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그저 어리숙하게 아픈 상처를 표면적으로만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 쉽게 끊어져 속에 끓은 상처까지 닿는 것은 아닐지, 하던 또 다른 질문을 남겼던 작업이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한 가지 색의 양모를 이용한 듯 보이지만 여러 가지의 색을 안에 깔고 시작한 작업으로 상처난 자리에 언뜻 보이는 색감으로 상처를 덮은 자리에 다시 깊게 드러나 도드라진 상처가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16) 림태주, 『관계의 물리학』, 웅진 지식하우스, 2018, pp. 18-19



【작품 11】 드러나는 관계, 100×60cm, 천에 양모, 2018

양모를 반복적으로 찢어서 엮고 상처 내는 행위 다음으로 【작품 11】을 통한 작업에서는 태우기, 그을리기의 행위가 시작되었다. 이는 관계의 흐름, 즉 관계 형성에서의 시간적 요소를 표현하려 하면서 반복되는 행위에 시간적 요소를 담게 되었다. 태워 없애고 그을려 자국을 남기는 행위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계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표현하였다. 작업을 태우면서 만들어진 형상은 마치 짧은 머리를 한 사람의 사라져가는 얼굴의 형태가 보이기도 하며 이 얼굴 속에 맺어 놓은 행위적 표현들이 뒤엉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복잡한 본인의 감정을 회오리 같이 얽혀있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업은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형상화된 형태 자체를 사각의 틀 밖으로 드러내어 관계는 어딘가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3) 심리적 표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많은 요인 중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일 것이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뇌가 그 사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사이 즉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반면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관계 형성에 대하여

서로 얽혀있는 정도에 따라 관계의 밀도가 달라진다.

우린 얼마나 얽혀있는 관계일까.

네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취미가 무엇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꿈을 꾸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말투는 어떤지, 잠은 얼마나 자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너는 얼마나, 나는 또 얼마나, 우린 서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본인의 작업 노트 중에서-

그만큼 인간이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존재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서 보이는 인간관계야말로 난해한 인간의 삶의 수수께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수께끼에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생기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내재하고 있다.



【작품 12】 관계의 대화, 227×162cm, 천에 양모, 2017

【작품 12】는 서로 맞지 않는 사이의 사람들 관계를 그려본 작업이다. 타인과의 소통은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통하기 위해선 서로의 가치관, 생각 등의 이해가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타인과 서로의 생각과 경험 혹은 미래에 관한 대화를 즐겨 했고 이러한 상황을 좋아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과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대화에서 서로의 이해보단 타인으로부터 억압되어가는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이런 억압된 대화로 타인과의 갈등과 다툼을 하며 그동안 쌓아 왔던 친밀감은 점차 무너져 갔다. 본인은 무너지는 관계를 배경의 조각조각 흐트러짐으로 표현하였고 갈등의 시작인 다툼의 모습은 따

뜻한 색감과 차가운 색감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경에서 부조 형태로 드러나는 마주 놓인 의자는 대화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관계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풀기 어려운 삶의 과제인 것이다. 행복과 불행, 만남과 이별, 맺기와 끊기, 이해와 갈등 등,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속의 심리적 요인을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화면과 의미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의 특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려 한다.

먼저 행복과 사랑, 기쁨 등의 심리가 나타나는 긍정적인 관계를 따뜻한 요소로 표현하려 한다. 여기서 따뜻함을 밝게 빛나는 전구라는 소재와 양모의 촉감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따뜻함, 밝음의 느낌을 나타내 긍정적인 관계를 더 극도로 살려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관계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 또한 담겨있다.



【작품 13】 스쳐가다, 37×46.5cm, 천에 혼합재료, 2017

이러한 작품 중 【작품 13】은 본인의 작품에서 빛(밝고 따뜻함)으로 표현되는 전구와 이것을 감싸고 있는 조형적 형태에 얽힘의 덩어리들이 스쳐 지

나가는 모습과 지나가지 못하고 밝게 빛나는 덩어리, 즉 밝고 긍정적인 관계에 얽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본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게 스쳐 지나가는 여러 관계를 맞이함에 따라 나의 따뜻함에 남아 있는 좋은 관계에 얽힘을 표현하였지만 이에 지나간 인연들에 조금은 아쉽고 쓸쓸한 마음 또한 함께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14】 머리, 가슴,
빛(가로), 100×30cm,
천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5】 머리, 가슴,
빛(세로), 100×30cm,
천에 혼합재료, 2017

그리고 앞의 작업과 같이 전구를 사용한 【작품 14】 , 【작품 15】 는 이성과 감성 사이의 화합을 이야기한다. 삶을 살다 보면 이성과 감성 사이의 갈등을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 머리로는 이 관계를 시작해라, 끝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등 어떠한 현실적인 생각과 결정을 드러내는데, 생각처럼 쉽게 결정되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심리이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은 이성이든 마음이든 하나의 뜻을 선택한다. 여기서 본인은 어느 쪽의 결정이든 후회 없는 긍정의 결과가 나오기 바라는 염원을 담아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림 테두리에 나타나는 얽힌 덩어리와 전구, 빛의 표현을 마치 상형문자와 같이 표현하여 주술적인 느낌을 주려 하였다.

반면에 차가움은 갈등과 꿇김, 불행, 이별, 쓸쓸함 등 관계 속의 심리에서 나타나는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은 차가운 계열의 색감이나 분위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작품 16】 흐르는 관계, 15×22cm, 천에 양모, 2017

【작품 16】에서는 푸른 계열 색감을 사용해 작업하면서 삶에서의 관계에 지쳐 홀로 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느끼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인지 어떤 관계를 통해 느낀 것인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 끝에 본인은 사람 속에 있던 내가 그들의 부재를 실감하며 나타난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분명 내 주위에 있지만 마치 안개 속에 가려 나에게 보이지 않음을 느끼며 이 작품을 통해 내 삶은 나 홀로 쓸쓸히 흘러가는 감정임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화면에 보이는 작은 회색의 형상은 본인이 되기도 하며 작은 열쇠 구멍으로 의미 되기도 한다. 이는 누군가가 작은 열쇠 구멍을 통해 본인의 이 쓸쓸한 마음을 열어 주길 바라면서 표현하였다.



【작품 17】 상한 관계: 제거된 것, 135×70cm, 천에 양모, 2018

그리고 【작업 17】에선 본인의 신체가 직접 이미지로써 들어내는 것을 시도하며 차가움을 표현해 보았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가슴에 있던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이 시기에 가장 지치고 힘든 이별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그때 왔던 아픔과 상처, 흔적(흉)을 그대로 표현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 제목으로 표현한 상한 관계에서 ‘상함’은 몸을 다쳐 상처를 입는다.¹⁷⁾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상처, 마음은 한없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고 또다시 찢어지고 아물고를 반복하는데 걸은 아물어서 다 나아 보일지라도 속은 너털거리는 현것일 뿐, 아물었다고 한들 처음의 새것일 리 없다. 그래도 또 언젠간 다시 아물 것이다. 그것이 이미 현것일지라도.

-본인의 작업 노트 중에서-

이처럼 현것이 된 내 몸은 나의 것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았고 본인의 마음 또한 그랬다. 그래서 가장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를 제거하고 가슴부터 허벅지까지를 표출함으로 나의 주체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현실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2019.11.02.) 참고

Ⅲ. 결 론

예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의 문제와 사회의 현상을 언급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 이에 본인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맺는 관계를 작업으로 언급하려 시도한 것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에서 계산적인 모습이 관계 형성에 있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산적이며 차갑고 딱딱한 관계의 모습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관계 얽힘을 통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얽힘을 관계의 기본 구조로 바라볼 수 있었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작업에 사용하는 니들 펠트(Needle Felt) 기법을 연구하면서 본인이 바라본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회화적 표현을 위해 양모의 축융성을 연구하여 자극을 통해 얽힘을 만들어 내는 양모의 물성을 알 수 있었으며, 양모는 또한 다른 소재에 비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써 본인이 작품에서 의도한 따뜻함과 부드러움의 관계 형성을 반복적 행위를 통해 축적되는 부드러운 촉감의 요소를 의미화하면서 현대사회의 딱딱한 관계를 비판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써 현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니들 펠트(Needle Felt)의 기법이 회화표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유를 작품 제작에서의 반복적 행위성과 심리적 표현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본인의 신체를 사용하여 붓이라는 도구 대신에 양모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수한 바늘을 이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찌르는 행위적 표현이 본인이 작품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관계에서의 무의식적인 감정 몰입과 그 흔적들을 회화적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자르는 행위를 통해 관계의 갈등과 와해를 표현해 본인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표현을 통해 작품에서의 회화성이 내재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본인은 작품에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계 형성의 과정을 얽힘을 반복적인 작업 행위를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을 주체적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었기에 완성되는 작업에서 본인의 관계 구조는 내가 뛰어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니틀 펠트의 기법을 이용한 관계의 구조는 찢러 열고 자르고 태워 흔적을 남기는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 본인이 맺어가는 관계는 어떤 형상이며 나의 행위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은 이를 평면에서 갇힌 틀이 없는 완벽한 입체까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신체가 개입되는 행위적 작업을 연구하여 이를 다양한 관계의 모습과 감정을 회화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석봉, 『羊毛講座』, 교문사, 1996
-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2004
- 김복영, 『눈과 정신』, 한길아트, 2006
- 림태주, 『관계의 물리학』, 웅진 지식하우스, 2018
- 안병기, 『피복재료학』, 경춘사, 2004
- 윤진섭, 「1970년대 한국 단색화의 등장과 전개」,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6
- 이재열, 『생활 속의 인간관계론』, 북코리아, 2009
- 멜 구덩, 정무정 율김, 『추상미술』, 열화당, 2003
- 장 킷 다발, 홍승혜 율김, 『추상 미술의 역사』, 미진사, 1990

학위논문

- 김원모, 「섬유의 탄성과 라텍스의 경화성에 의한 섬유변형」,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남유선, 「장욱진 회화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인환, 「현대공예의 제작행위와 기법의 의미화를 통한 작품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ZHANG JIN, 「양모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9

사이트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국립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기당미술관, <http://culture.seogwipo.go.kr/gidang/>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Painting by Needle Felt Technique

- centering on personal works -

Kim BoYo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composed of works produced from 2015 to 2018 that were presented at the researcher's exhibition titled 'Such, Relationships' in 2018. Based on the content of human relations in modern society, in-depth research regarding the use of needle felt technique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press said content in a visual manner.

This study criticizes the personal and selfish relationships of our modern society, and aims to examine the emotions that arise from these relationships. One can begin to understand this overall process by envisioning the basic framework of human relations as a tangled structure. In addition, it was paramount to extensively study proper expression techniques and their corresponding artistic value in order to visually

express the appearance of one's experienced relationships.

As people living life,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that we all inevitably experience make us feel a variety of emotions and grow socially, therefore we live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However, in this individualistic and capitalist modern society, more and more people are engaged in relationships with cold and selfish thoughts. The disappearance of intimacy has become a problem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cing people to acknowledge and feel the importance of forming warm and friendly relationships. As the researcher examined relationships with others, she looked at the framework of these relationships as a tangled structure and expressed them using needle felt technique to create various works of art.

The researcher used specific needles to create solid wool pieces that tied and bonded threads into forms that are representational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This was the beginning of her signature artistic skill, needle felting. Furthermore, through needle felt techniques, she explained that the repetitive behavior of physical intervention represented the formation of her own self-relevant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a visual way, thus supporting the human nature of the researcher's work by examining the soft texture of wool and expressing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by studying the composition of wool itself.